

# 2012학년도 6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1	⑤	2	④	3	④	4	⑤	5	③
6	②	7	①	8	⑤	9	②	10	②
11	④	12	⑤	13	④	14	①	15	②
16	②	17	③	18	①	19	⑤	20	②
21	③	22	④	23	①	24	③	25	③
26	④	27	②	28	⑤	29	③	30	⑤
31	④	32	①	33	①	34	④	35	③
36	⑤	37	②	38	②	39	③	40	①
41	①	42	④	43	③	44	⑤	45	①

### 해설

#### 1. [출제의도] 연상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⑤의 경우 그림으로는 집짓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주어져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이 적절하게 지어지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착안점으로 이끌어 내었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글을 다 쓴 후에 검토하여 고쳐 쓴다는 내용을 연상하였다. 집짓기에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글짓기에서는 '다 쓴 후'에 점검하는 것이므로 연상과정이 제대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출제의도] 자료의 활용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가)는 선행 학습식 사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신문 기사이다. (나)는 선행 학습식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다. (다)는 선행 학습식 사교육의 효과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선행 학습식 사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이다. 따라서 (가)와 (다)에서는 선행 학습식 사교육을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점을 제시할 내용은 찾을 수 없다.

#### 3. [출제의도]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문제의 해결 방안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기>에서는 공동 주택 층간 소음 원인의 하나로 층간 소음을 규제할 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 주택의 층간 소음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거나 공동 주택 관리 규약처럼 주민들끼리 합의한 '층간 소음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주택 생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④와 같이 층간 소음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동 주택의 건설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공동 주택 소음 문제에 대하여 본질적인 측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무리하고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4. [출제의도] 글을 적절하게 고쳐 쓸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의 '반성하게 한다.'는 주어 '나는'과 호응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로 수정해도 주어 '나'와 호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로 수정하지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해달이 돌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의미이므로, '지식'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지능'

이 높다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1문단은 해달이 영리하다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과 같이 해달의 서식에 관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어디에 누워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바다에'라는 문장 성분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해달이 똥똥 떠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해달이 손을 잡아 주었다는 내용으로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그리고'보다는 '그런데'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 5.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보기>는 상황의 직접적 제시, 대조, 의인법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관심에서 산불이, 관심에서 보존이'에서 대조를, '산불 예방'에서 문제 상황을, '산이 웃고 노래'에서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부주의로 인한 산불'에서 문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행과 2행에서 문제 상황 및 대조를 확인할 여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의인법을 확인할 수 없다. ④ '산도 여러분도 건강해집니다'에서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에서 의인법을 확인할 수 있다.

#### 6. [출제의도] 합성어의 결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대등한 자격을 지닌 단어들 결합하여 합성어가 될 때에는 일정한 순서를 지키는데, 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②의 '돌다리'는 '돌로 만든 다리'라는 뜻으로, 앞의 단어가 뒤의 단어를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여기에는 <보기>에 제시된 합성어의 결합 양상과 관련이 있는 사고방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의 '여기저기'는 가까운 거리를 먼 거리보다 먼저 파악하려는 경향, ③의 '어제오늘'은 앞선 시간을 뒤에 오는 시간보다 먼저 파악하려는 경향, ④의 '잘잘못'은 긍정적인 요소를 부정적인 요소보다 선호하는 경향, ⑤의 '에닐곱'은 작은 수에서 큰 수의 차례로 파악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합성어이다.

#### 7. [출제의도] 높임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분석 문장에서 서술어 '가시었어요'의 주체는 '아버지' ㉠, 객체는 '할아버지' ㉡이고,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은 '어머니'이다. <보기 1>에서 제시된 높임 실현 방법을 참고할 때,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종결 어미 '-요' ㉢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8~9] (기술) 꿈꾸는 과학, 「뒷간에서 주웠어, 뭘?」

이 글은 조선 시대 활인 각궁의 우수성을 화살이 날아가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활은 복원력, 즉 물체가 힘을 받았다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힘을 이용한 무기이다. 그런데 복원력은 물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각궁은 복원력이 뛰어난 활이다. 그것은 각궁이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의 뿔, 힘줄 등의 여러 재료를 이용하여 활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 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시각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C]는 화살이 날아가는 단계이다. 이때 화살은 [B]에서 얻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며 날아가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복원력은 화살을 날아가게 한 운동 에너지의 양과 같다. 따라서 활대의 복원력과 화살이 지니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양을 반비례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는 화살을 쏘기 이전의 단계이고, [B]는 활의 시위를 당겨 놓은 단계이다. [A]의 화살은 이동하지 않았으므로 위치 에너지가 없다. 반면에

[B]는 시위를 당기는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 즉, 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더 많은 위치 에너지가 발생하며, 이때 활대의 복원력은 위치 에너지의 크기 만큼 커진다. ② [B]에서 화살은 [A]에서 시위를 당길 때 이동한 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③ 2문단을 참고할 때, 복원력은 활대가 많이 휘면 휨수록 커진다. 따라서 [B]의 활도 많이 휘면 휨수록 복원력이 커질 것이다. ④ [B]에서 [C]로 진행될 때, 화살은 날아간다. 2문단을 참고할 때, 이는 [B]에서 화살이 얻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 9. [출제의도] 핵심 구절의 이유를 추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조선 시대 각궁이 우수한 성과 품질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각궁의 우수성은 복원력이 좋기 때문이다. 각궁은 이러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의 뿔이나 뼈, 힘줄, 탄력 좋은 나무 등을 사용했다. 각궁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합성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다양한 재료를 조합하여 활대의 탄력을 높였다는 ②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 [10~13] (현대시) (가) 유치환, 「바위」 / (나) 김남조, 「설일」 / (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가) 유치환, 「바위」

이 작품은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바탕으로 안락한 삶에 대한 유희와 외부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바위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 김남조, 「설일」

이 작품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에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절대자가 주재하는 삶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관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다)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이 작품은 우리를 눈발로 가정한 상황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주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어를 통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표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여 표현하였다.

#### 10.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바위처럼 굳건하게 살아가겠다는 삶의 자세를, (나)는 삶에 대한 겸허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다)는 주변 이웃에 대한 위안과 위로를 주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②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자세를 다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④ (다)에는 주변 이웃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찾을 수 있지만, (가)와 (나)에서는 이를 찾을 수 없다. ⑤ (나)에서는 외로운 현실의 모습이, (다)에서는 춥고 어두운 현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다.

#### 11. [출제의도] 시의 내용과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화자의 강인한 삶의 자세를 노래한 시로, 일체의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런데 화자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시련을 온 몸으로 견디고 마침내 '생명도 땅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정하는데, 이 부분에서 현실에 좌절하고 굴복하는 화자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애련'과 '회로'는 인간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는 화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② ‘비와 바람’은 시련을 상징하는 것으로, ‘깎이는 대로’에서 시련을 묵묵히 감내하는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 있다. ③ ‘안으로 안으로만 채찍질’하는 것에서 화자 자신을 단련하는 태도를 찾을 수 있다.

**12. [출제의도] 시의 표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반어적 표현은 화자의 의도와는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화하는 것인데, ㉠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내 죽으면’에서 극단적 가정을 하고 있다. ② ‘머언’에서는 시적 허용을, 동일한 의미 중첩은 ‘머언’과 ‘원외’에서 찾을 수 있다. ③ 보이지 않는 ‘바람’을 ‘머리채’로 시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은유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3. [출제의도] 시를 구조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시는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구로 A와 B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다시 ㉠~㉣로 나뉘어 서술되는데, 이 사이에서 서술어 ‘되다’는 ‘되지’, ‘되어’, ‘되고’, ‘되자’로 반복되고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점차 심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B로 전개되면서 시의 의미가 점차 심화되므로 시상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에는 서술어 ‘되다’가 반복되고 변형되어 나타나는데 ㉠에서는 ‘진눈깨비’처럼 부정적 느낌의 존재가 ‘되지 말자’로, ㉡에서는 ‘함박눈’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어 내리자’로 표현한다. 또 ㉢에서는 누군가에게 ‘편지’처럼 따뜻한 존재가 ‘되고’로, ㉣에서는 누군가의 ‘붉은 상처’에는 따뜻한 존재인 ‘새살’이 ‘되자’고 한다. 이로써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위로와 위안을 주는 존재가 되자는 화자의 권유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의태어를 묻고 있는데, 의태어는 ㉠에서 ‘쭉뻛쭉뻛’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16] (언어) 이의점, 『국어학 개설』**

이 글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이므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언어 또한 이동하여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것을 전제로, 중심지인 방사 원점으로부터 언어 세력, 즉 개신파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신파가 부딪쳐 두 지역의 언어 특징이 뒤섞이는 전이 지역과, 깊은 산중이나 외딴 섬과 같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 개신파의 영향을 받지 않아 언어의 옛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잔재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두 개 이상의 방사 원점으로부터 개신파가 확산되어 나갈 때, 개신파들이 부딪쳐서 양쪽 지역의 언어가 섞이는 지역을 전이 지역이라 하고, 개신파들이 확산되어 나갈 때 그 중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지역을 잔재 지역이라 한다. 따라서 두 지역의 언어가 섞이는 전이 지역과 주변 지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잔재 지역은 일치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파문설은 언어가 전파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언어가 어떻게 변화되고 유지되는지를 연구하는 데 유용하다고 했다. ③ 1문단에서 사람들이 중심지와 주변 지역 사이에서 이동하는 과정이 되풀이되면서 중심지의 언어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도시나 저지대가 방사 원점이 되는데 개신파가 퍼져 나가는 속도는 지리적 제약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⑤ 1문단에서 언어는 정치·경제·문화 중심지로부터 그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고 했다. 따라서 정

치·경제·문화 중심지가 방사 원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1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은 잔재 지역으로, 개신파들이 확산되어 나갈 때 그 중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C지역의 언어 세력이 강해진다고 해서 ㉡가 커지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A지역, B지역, C지역은 모두 개신파를 일으킨 지역이므로, 그 세력의 중심지인 방사 원점을 가진다. ③ ㉠은 A지역과 B지역의 개신파가 부딪치는 지역이므로, A지역과 B지역의 언어적 특징이 뒤섞이게 된다. ④ ㉠은 A지역, B지역, C지역의 언어적 영향을 받지 않는 잔재 지역이므로, 그 지역 본래의 순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⑤ ㉠은 잔재 지역이므로, 깊은 산중이나 외딴 섬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일 가능성이 높다.

**16. [출제의도] 제시된 사례와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은 ‘벼’라는 한 가지 의미에 대해 ‘베’라고 하는 어형(글자 형태)과 ‘나라’이라고 하는 어형,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한 의미-두 어형) <보기>에서 ㉠은 ‘먼지’라는 한 가지 의미에 대해 ‘몬득’이라고 하는 어형과 ‘구똥’이라고 하는 어형,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한 의미-두 어형) ㉡은 ‘아지매’라는 한 가지 어형에 대해 ‘숙모’라고 하는 의미와 ‘형수’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한 형태-두 의미) ㉢도 ‘소행’이라는 한 가지 어형에 대해 ‘하거나 해놓은 나쁜 짓’이라고 하는 의미와 ‘이미 해놓은 좋은 일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한 형태-두 의미) 그리고 ㉣은 ‘새우’라는 한 가지 의미에 대해 ‘새뱅이’라고 하는 어형과 ‘새우지’라고 하는 어형,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한 의미-두 어형) 따라서 ㉠과 유사한 관계(한 의미-두 어형)를 지닌 사례는 ㉡과 ㉣이다.

**[17~20] (예술) 국립발레단, 『즐거워라 발레』**

이 글은 공연 예술인 발레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 사조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발레의 어원과 궁중 무용으로 시작된 발레가 공연 예술로 정착되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발레 사조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낭만 발레의 특징을 무대 및 장면, 무용수의 역할과 의상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러시아의 고전 발레가 지닌 특징을 안무, 형식, 남녀 무용수의 역할, 무대와 의상 등으로 세분화하여 소개하였으며, 4문단에서 좀더 다양하고 자유롭게 변화된 모던 발레의 특징을 서술하여 전체적으로 발레 사조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마지막 문단에서 이러한 흐름을 정리하였다.

**17. [출제의도] 중심 화제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보기>가 이 글을 바탕으로 제작된 소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에는 이 글 전체의 제목이 드러나야 한다. 전체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적절한 제목은 ‘발레의 사조별 특징’이다.

**[오답풀이]** ⑤ 낭만 발레의 ‘포인트 동작’이나 여성 무용수의 의상인 ‘튀튀’, 고전 발레의 구성 요소인 ‘그랑 파드되’, ‘디베르티스망’ 등을 일부 활용하여 각 시대별 발레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용어 자체와 동작에 대한 이해가 글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8.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보기>에 제시된 프레젠테이션 화면의 내용은 낭만 발레와 고전 발레, 모던 발레의 세부적 특징들을 정리한 것이다. ㉠은 낭만 발레의 배경이 된 국가를 묻

고 있는데, 2문단 첫 문장에서 ‘프랑스’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낭만 발레 시대에는 ‘남성 무용수들은 ~ 보조자에 불과했다’고 언급된 데 비해 고전 발레에서 ‘남성 무용수들도 ~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고 한 점으로 보아 남성 무용수의 역할이 고전 발레에서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던 발레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4문단 첫 문장에서 ‘기존 발레에서 반복되었던 정형화된 형식을 벗어난’ 점을 들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정형화된 형식 탈피’가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문단에서 제시된 고전 발레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간추려 보면, 전설이나 동화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줄거리를 지니고 있다는 것(㉠), 화려하고 입체적인 무대 장치를 배경으로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구현한다는 것(㉡), 무용수의 화려한 기교를 다채롭게 보여준다는 것(㉢) 등의 특징이 제시되었다. ‘호두까기 인형’의 2막에 등장하는 아라비아 춤, 중국 춤, 스페인 춤 등 이국적인 춤들의 ‘디베르티스망’은 1인무가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구성이다. 그러므로 ㉤와 같이 ‘이국적인 느낌의 집단 군무’를 기대하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관용구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은 ‘자리’와 ‘잡다’라는 서로 다른 어휘가 결합하여 본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구이다. 그런데 ㉡의 ‘문을 닫았다’는 ‘문’이라는 어휘와 ‘닫다’라는 어휘의 본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표현이므로, 관용구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은 ‘돌 사이를 연결하다’, ③은 ‘가지 않다’, ④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하여 억울한 손해를 보다’, ⑤는 ‘굴복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1~23] (과학) 김창규, 『가장 오랫동안 의학을 지배한 사람, 갈레노스』**

이 글은 갈레노스와 그의 의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갈레노스는 어린 시절부터 의학에 입문하여 철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접하였다. 특히 돼지, 원숭이 등의 해부를 통해 지식을 얻는, 당시로서는 매우 획기적인 해부학 실험을 했다. 그래서 그의 의학 이론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의 종교와 결합하여 절대적인 교리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가 살던 로마는 인체에 대한 해부를 금지하고 있어서, 그의 인체에 대한 의학 지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해부와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 수립한 그의 의학 이론은 현대 의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했는지 평가한다.**

이 글은 갈레노스의 의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의 의학 이론이 철학을 접목시킨 이유는 확인할 수 없다. 3문단을 참고할 때, 당시 그의 의학 이론은 종교와 결합하여 절대적인 교리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갈레노스의 의학 이론과 철학을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갈레노스는 해부와 실험을 통해 의학 지식을 얻는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이러한 해부학은 현대 의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②는 2문단에서, ④는 3문단에서, ⑤는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2문단을 참고할 때, 갈레노스는 척수를 자르는 실험을 통해 근육의 조절 기능을 알아냈다.(ㄱ) 되돌이 후두 신경을 묶는 실험을 통해 뇌가 목소리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ㄴ) 수뇨관을 묶는 실험을 통해 소변이 방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알아냈다.(ㄷ) 그러나 3문단을 참고할 때, 동물의 심장을 해부하여 동맥과 정맥의 차이점을 관찰했지만, 혈액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다.(ㄴ)

**23. [출제의도] 핵심 구절의 이유를 추리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3문단을 참고할 때, 갈레노스가 현대 의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이유는 해부를 통해 의학 지식을 얻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러한 해부학은 아픈 부위를 직접 보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무려 1400년 동안이나 서양 의학을 지배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24~28] (시가 복합) (가) 이규보, 「모춘강상송인후유감(暮春江上送人後有感)」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다) 박규환, 「목련꽃 필 무렵」**

(가) 이규보, 「모춘강상송인후유감(暮春江上送人後有感)」  
이 작품은 <동국이상국전집>에 실려 있는 고율시(古律詩)로, 늦은 봄날 벼를 떠나보낸 슬픔과 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 벼를 떠나보낸 후 눈앞 가득한 고운 풀에 마음 아파하고, 어지러이 흠날리는 '버들개지'처럼 심란해 하고 있다. 또한 떠나간 벼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에 화자는 강가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다.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이 작품은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로, 까투리(불가토리의 안, 도사공의 안, 내 안을 견주고 있기 때문에 '삼안가'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입을 여윈 허전함과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망적 상황을 까투리와 도사공을 끌어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의 심정과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한 도사공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 자신의 마음이 그들보다 훨씬 더 절망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 박규환, 「목련꽃 필 무렵」  
이 작품은 오래전 세상을 떠난 형을 그리워하며 쓴 현대 수필로, 매년 목련꽃이 필 무렵 망형(亡兄)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며, 형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련을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꿈을 통해 형을 다시 만나는 상황을 설정하는 등 혈육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형에 대한 일화를 제시하여 형의 어진 성품을 드러내는 한편, 눈을 잃고 젊은 나이에 한스럽게 세상을 떠난 형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형을 추억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24. [출제의도] 작품 사이의 공통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가)는 벼를 떠나보낸 슬픔과 벼에 대한 그리움, (나)는 사랑하는 입을 여윈 절박한 심정을, (다)는 세상을 떠난 형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대상과의 단절이 작품을 창작한 계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출제의도] 시어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은 벼과의 이별로 어지럽게 날리는 화자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은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이나 수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화자의 마음, 사랑하는 입을 여윈 뒤의 절망적인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즉, ㉠에는 벼를 떠나보내서 생긴 심란한 마음이, ㉡에는 임의 상실로 인해 생긴 절망적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26.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지 평가한다.**

[A]는 저녁 강가의 풍경과 벼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를, [B]는 시골집 망형의 병창 앞에 있던 목련을 떠올리는 글쓴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A]에는 '붉게' 흐르는 노을, 버드나무 수없는 '푸른' 실, [B]에는 '황금빛' 봄별과 같이 색채감이 나타나는 어휘를 활용하여 시각적 인상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B]에서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인 '목련'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어렸을 적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지만, [A]에서는 그러한 소재를 찾을 수 없다.

**27. [출제의도] 표현의 특징 및 효과를 비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나)에는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열거법 등의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다. <보기>와 (나)에는 모두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나'의 상황과 비교하고 있지만, 그러한 상황을 풍자적으로 그려 내지는 않고 있다.

[오답풀이] ㉠ (나) 종장의 '가을하리오'는 '견주리오', '비교하겠는가'라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 ㉢ <보기>와 달리 (나)의 종장에서는 '도사공'이 처한 절망적 상황을 과장하며 열거하고 있다. ㉣ <보기>에 비해 (나)는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종장을 길게 늘어 놓고 있다. ㉤ '불가토리', '도사공'과 화자를 비교하여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나)와 <보기> 모두 활용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 속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작품에서 망형은 자신의 처자보다 동생들을 더 사랑하고, 너그럽게 동생들을 대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나의 꿈에서 '목련이 지금 피었냐'고 묻는 형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의 뜻이야 모르겠느냐'며 형은 생시처럼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형이 평상시처럼 크게 화를 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29~32]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유충렬전(劉忠烈傳)」**

이 작품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영웅 소설로, 유충렬의 영웅적 일대기를 다루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신 정한담은 충신 유심을 모함하여 귀향 보낸다. 그리고 유심의 아들 유충렬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충렬은 하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살아난다.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정한담은 항복한 후, 오랑캐의 선봉장이 되어 천자를 공격한다. 이에 유충렬이 반란군을 제압하고 천자를 구한다. 이후 유충렬은 천자로부터 높은 벼슬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29. [출제의도]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한담이 호왕에게 말하는 부분인 '소장이 육관 도사에게 ~ 유충렬은 사람이 아니라 천신입니다.'로 보아, 정한담은 원수가 자신의 능력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천자가 녀를 잃고 ~ 복문으로 빠져나와'로 보아, 천자는 정한담의 공격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 '천자가 원수의 힘만 믿고 깊은 잠에 들어 있었는데'로 보아, 천자는 원수를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하늘이 나 같은 영웅을 내실 때는 ~ 천자이기를 바랄쏘냐.'로 보아, 정한담은 원수가 아닌 자신이 천자가 될 제목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조정만이 지키고 있는 금산성이 공격당했다는 말을 듣고 '원수가 놀라 나는 듯이 금산성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보아, 원수가 조정만의 군사적 지략을 크게 신뢰한다고는 볼 수 없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서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한담이 천자를 잡기 위해 도성을 공격하자, 천자는 정한담을 피해 변수 가로 도망간다. 따라서 정한담이 천자를 변수 가로 유인하기 위해 도성을 공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정상적인 공격으로는 원수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정한담은, 호산대에서 도성에 있는 천자를 잡을 계략을 세운다. ㉡ 정한담은 천극한으로 하여금 금산성을 공격하게 하여 도성에 있는 원수를 금산성으로 유인하려 하고 있다. 이는 원수가 도성을 비운 사이에 도성을 공격하기 위함이다. ㉢ 도성에 있는 원수가 금산성으로 이동한 것은, 정한담이 원래 계획한 것이다. ㉣ 원수는 호산대에 있는 적군을 없애려고 가는 도중에 천자가 위험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천자를 구하기 위해 변수 가로 간다.

**31. [출제의도] 말하기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한담은 옥새를 바치고 항복 문서를 쓰면 죽이지 않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천자와 천자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천자는 항복 문서를 쓰려고 해도 종이와 붓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를 찾을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은 천자의 목숨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는 뜻하는 '명재경각(命在頃刻)'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눈앞의 이익을 보면 의리를 먼저 생각함. ㉢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음.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 지은 선악의 업에 따라 양값음을 받음.

**[33~36] (사회) 법무부, 「청소년과 계약」**

이 글은 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계약에 관한 법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다. 따라서 민법은 의사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늘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법은 이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게 최고권과 철회권을 부여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1문단에서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하였다. 또 이런 법률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 당사자는 이를 통해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하였다.

[오답풀이] ㉡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친권자이며,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법적으로 만 20세 미만은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만 20세 이상은 의사 능력이 있는 성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나이는 의사 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만취한 어른과 같은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미성년자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최고권과 철회권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중심 내용을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에서 응답자는 성인이 된 지 3년 이내,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부모님(법정 대리인)이나 성년이 된 계약자가 계약 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면 이는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㉔의 응답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속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㉕의 응답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업자가 보내온 최고장을 받고 거기에 적힌 기간 안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확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데, ㉖의 응답자는 이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35.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㉑에서 청소년이 계약을 할 때 어른과 달리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있다. 2문단을 보면,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이유가, 국가가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성년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이유는 1문단에 나오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없는 행위 무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즉,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 판단 능력이 부족해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36.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부여(附與)’는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등을 지니도록 해 주거나, 사물이나 일에 가치, 의의 등을 붙여 줌’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떨어지지 아니하게 붙음’의 뜻을 지닌 어휘는 ‘부착(附着)’이다.

**[37~40] (현대소설) 김원일, 「미망(未忘)」**

이 작품은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되는 한 가족의 대립과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할머니와 어머니의 대립관계는 일상생활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나, 서사가 진행되면서 좌익운동에 헌신적이었던 아버지와 그 가족에 대한 억압에서 기인한 갈등이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 구조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역사의 피해자임이 드러난다. 결국 작가는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통해 한국전쟁과 남북 분단이 가져다준 상처,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작품은 ‘나’에 의해 할머니의 삶과 어머니의 삶,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 등이 서술되고 있다. 나는 할머니의 삶에 대한 관찰자이자 과거 경험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심야에 한두 차례 일어나’는 할머니의 습관 속에 할머니의 한이 서려 있음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또한 할머니의 임종을 전후로 한 가족들의 행동과 자신의 경험 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품 속 서술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인물들의 삶을 보여주는 서술상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나’가 할머니의 일상 및 과거 경험 등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에서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사건의 전모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작품 속의 서술자가, 할머니 혹은 다른 가족들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판단과 함께 서술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작품 상황을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아버지가 종적을 감춘 후, 할머니는 아들의 안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이 전반부에 드러나고 있으며, 나 역시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사진으로만 보았을 뿐 기억

조차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③ 고모는 할머니가 ‘살아생전 호강’ 한번 못해보고,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못 먹어보았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⑤ 아버지는 ‘보통학교를 일등’으로 졸업하고, ‘인근 군에서는 한둘 입학이 고작’인 학교에도 쉽게 합격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좋다는 직장’을 다 마다하고 ‘농민운동을 시작’하여, 일제의 탄압을 받았음이 드러나 있다. 또한 아버지를 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의 즐거움이란 대단’했을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39. [출제의도] 대화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㉑은 ‘행복한 시절’을 묻는 나의 질문과 연계되어 서술되고 있는데, 여기서 ‘심란한 듯’ 보이는 할머니의 심리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말에서 나는 ‘할머니의 기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㉑에는 할머니가 느꼈던 과거의 감정과 현재의 안타까운 감정이 중첩되어 있다.

**40.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보기>는 이 작품에 제시된 가족의 삶이 민족의 이념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과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의 안위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아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A]에서는 ‘대역죄인 아들’을 남한테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하며 살아왔으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정성’이 그 바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㉒은 인물의 비극적 삶 가운데서도 지켜온 모성애의 상징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41~45] (인문) 소홍열 외, 「철학」**

이 글은 맹자의 인성론을 소개하고 있다. 맹자의 인성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고자의 인성론을 소개하였다. 고자는 생리적 욕망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 생리적 욕망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으므로 인간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맹자는,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내재되어 있고, 인간이나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본능은 본성이 아니라고 하였다. 인간은 사단을 잘 길러낸다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41.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 글은 고자의 인성론을 먼저 소개한 후에 이에 대한 맹자의 반박을 소개하면서 인성론에 대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고자는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 선하게 된다고 본 반면,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사단이라는 인의예지를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사단을 잘 길러나가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맹자의 인성론이 인간 스스로가 바른 도덕성을 길러 갈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서, 맹자의 인성론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판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맹자의 인성론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장단점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맹자의 인성론을 소개하면서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맹자의 인성론과 고자의 인성론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두 사람의 인성

론을 절충하여 통합한 인성론을 이끌어내고 있지는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고자는 식욕과 색욕 같은 생리적 욕망을 본성이라고 하면서, 생리적 욕망은 인간이나 동물에게 모두 있는 것이므로 생리적 욕망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물이 동쪽이나 서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선과 악의 구분은 없다고 했고, 장인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드는 것처럼 인간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오답풀이]** ① 식욕과 색욕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생리적 본능 자체에는 선과 악이 없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동물의 생리적 욕망이 인간의 본능과 동일하다는 것은, 생리적 욕망은 인간이나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인간의 본성 자체는 선과 악이 없다고 했으므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본성을 선하게 만든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5문단을 보면 모든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사단을 잘 길러낼 것을 의식적으로 반성하여 확충해야만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이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된다는 말은 맹자의 인성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선으로 향하는 본래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② 3문단에서 버드나무에 휘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있다고 했다. ④ 3문단에서 생리적 본능은 본성으로 보지 않고, 동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독특하게 지닌 도덕성이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4문단에서 그 도덕성이 사단이라고 했다. ⑤ 5문단에서 감각적, 생리적 욕구에 이끌려서 사단을 무시해 버리고 내버리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44. [출제의도]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했는지 평가한다.**

<보기>의 내용은 순자의 성악설과 관련된 내용이다. [A]에서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선천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맹자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보고 있고, 순자는 후천적인 교화와 예의 법도에 의해 선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인위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보기>의 순자이다. ②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사람은 [A]의 맹자이다. ③ [A]에서는 인간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보기>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④ <보기>의 순자도 인간이 타고난 본능을 성품이라고 했다.

**45.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지 평가한다.**

㉑의 ‘보았다’는 ‘대상을 평가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은 상대를 만만하게 평가했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일정한 목적 아래 만나다. ③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 ④ 물건을 팔거나 사다. ⑤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거나 얻어 가지다.